

Resorts World Sentosa

싱가포르 관광의 아이콘

리조트 월드 센토사는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 자리한 세계 최초의 복합 리조트로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관광 아이콘이다. 센토사는 말레이어로 평화와 고요함을 뜻하지만, 실제 센토사에는 오감을 자극하는 판타지와 시끌벅적한 재미가 있다.

사진 김주형 기자·글 신재우 기자



S.E.A 아쿠아리움은 수조 용량이 43억ℓ에 달한다. 세계 최대의 아쿠아리움으로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는데 현재 800여 종 10만 마리의 해양 동물이 서식하고 있다.

S.E.A 아쿠아리움은 상상이 현실이 되는 곳이다. 전 세계 49개 서식지에서 온 귀한 해양 생물을 바라보며 식사를 하거나 잠을 자는 경험은 S.E.A 아쿠아리움만의 특별한 선물이다.

10만 해양 동물이 서식하는 바다 세계

S.E.A 아쿠아리움은 리조트 월드 센토사의 자랑이다. 이곳은 세계 최대 수준의 규모를 자랑하면서도 ‘스토리’를 놓치지 않았다. 아쿠아리움의 여정은 15세기 대항해시대를 열었던 명나라 정화에서부터 시작된다. 해양체험박물관에 들어서면 25년간 페르시아 만에서 호르무즈 해협, 아프리카 동해안까지 항해한 정화의 함선이 실물 크기의 모형으로 전시되어 있다. 정화를 통해 동남아시아 해양 역사를 접한 관람객은 옛 사람이 해양 실크로드를 통해 수집했던 예술품과 약기, 옷감과 보석을 보게 된다. 중국식 뚝단배 정크(Junk)와 아랍식 뚝단배 다우(Dhow) 등 역사 속 다양한 선박을 확인한 후에는 타이퐁 극장에서 거친 바다의 현장을 체험한다. 짐을 잔뜩 실은 뚝단배는 태풍을 향해 돌진하다 결국 침몰한다. 항해에 동참한 관람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즐길 수 있는 복합 리조트

센토사는 싱가포르 본섬에서 800m 떨어진 섬이다. 1970년까지 영국의 군사기지였던 이곳은 싱가포르 정부 정책에 따라 관광단지로 변해갔는데, 2010년 개장한 ‘리조트 월드 센토사’는 센토사는 물론 싱가포르 관광의 판도를 바꿔놓은 ‘핫 플레이스’가 됐다. 리조트 건설사는 말레이시아의 겐팅(GENTING). 겐팅은 섬 면적의 3분의 1인 49ha에 70억 싱가포르달러를 투입해 세계 최초의 복합리조트를 건설했다. 가족 단위 휴양객은 물론 남녀노소 여행객을 두루 만족시키는 숙소와 즐길 거리를 갖춘 덕분에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몰려든다. 리조트 월드 센토사에는 동남아시아에서 하나밖에 없는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있다. 세계적인 규모의 아쿠아리움과 해양 동물이 함께하는 워터파크, 돌고래 체험장을 갖췄고, 각기 다른 매력을 뽐내는 6개의 호텔과 컨벤션 센터, 카지노를 보유하고 있다. 미술랭 가이드가 인정한 유명 셰프의 음식에서부터 세계 각국의 길거리 음식까지 다양한 먹을거리를 갖췄다. 열대 우림 자연에서 휴식을 취하다가도 밤이면 화려한 조명과 불꽃의 향연을 즐길 수 있는 곳인 리조트 월드 센토사다.



객은 자신이 난파된 배와 함께 바다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바다생물과 산호의 서식지가 된 난파선, 그리고 그 옆에서 빛나고 있는 보물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수조관을 지나오면 본격적인 아쿠아리움 탐험이 시작된다. 아쿠아리움에는 거대한 크기의 상어부터 회귀 물고기까지 바다생명 800여 종이 살고 있다. 개체 수가 10만을 넘는다. 아쿠아리움의 중앙에는 가로 36m, 세로 8.3m의 대형 유리 패널을 통해 해양 생태를 볼 수 있는 ‘오션 갤러리’가 있다. 1천800만ℓ 수중에서 헤엄치는 레오파드 상어와 가오리, 망치상어, 골리앗 그루퍼가 인상적이다. ‘바닷 속에서의 식사’, ‘바다 속에서의 숙면’이라는 상상이 현실이 되는 공간도 있다. ‘오션 레스토랑 바이 캣 코라’(Ocean Restaurant by Cat Cora)는 물고기 수만 마리가 헤엄치는 수족관을 감상하며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유명 셰프 캣 코라가 운영한다. 오션 스위트(Ocean Suites)는 한쪽 벽면이 오션 탱크인 호텔이다. 복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층에는 치쿠지와 거실이 있는데 한국 연예인들이 자주 찾는다는 후문이다.



싱가포르 최초의 워터파크인 어드벤처 코브 워터파크는 스릴 넘치는 어트랙션을 좋아하는 이들에게 짜릿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짜릿한 즐거움을 선사하는 '물의 천국'

어드벤처 코브 워터파크(Adventure Cove Waterpark)는 눈부신 태양 아래서 스릴 넘치는 놀이기구를 타고 싶어 하는 젊은이와 아이들을 위한 곳이다. 규모는 아담하지만 스릴 만점의 어트랙션이 짜임새 있게 갖춰져 있다.

리프트라이드 로켓(Riptide Rocket)은 워터파크에서 가장 인기 있는 어트랙션이다. 동남아시아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수중 자기 코스터로 2명의 탑승자가 보트를 타고 수직으로 상승했다 하강한다. 225m 높이에서 40초간 떨어지는 짜릿한 경험을 할 수 있다.

블루워터 베이(Bluwater Bay)는 파도 풀장이다. 최대 2.2m로 치솟는 인공파도가 15분 동안 몰아친다. 파도가 잠잠할 때는 카바나와 비치의자에서 일광욕을 즐길 수 있다. 이밖에 엄청난 양의 물을 머리 위로 뒤집어쓰는 빅 버킷 트리 하우스, 원형 튜브를 타고 월풀의 슬라이딩을 체험할 수 있는



월풀 워시아웃, 620m에 달하는 튜브 안을 헤엄쳐야 하는 어드벤처 리버도 인기 만점이다.

워터파크에는 해양 생물이 사는 바닷속 세계를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다. 시 트랙 어드벤처(Sea Trek Adventure)는 특수 장비를 쓰고 수족관을 자유롭게 걸어 다니며 만타고리, 그루퍼 등 수천 종의 생물을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스쿠버다이빙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샤크 다이브(Shark Dive)를 시도해도 좋다. 해머헤드상어 등 12종류의 상어 사이로 헤엄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밖에 상어를 대면해 습성을 관찰하거나 가오리를 직접 만져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워터파크에는 산호초와 2만여 마리의 다양한 물고기를 눈앞에서 볼 수 있는 스노클링 체험장이 있다. 인공해변은 물놀이에 지친 관광객이 잠시 쉬었다 가는 곳이다.



돌핀 아일랜드(Dolphin Island)

돌핀 아일랜드는 남방큰돌고래가 사는 곳이다. 대리석처럼 매끄러운 돌고래의 배와 등을 쓰다듬고 함께 헤엄을 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넓고 깊은 수조에 들어가 돌고래를 직접 만나면 이 동물이 지닌 친근감과 수영 실력에 놀라게 된다.

트레이너는 돌고래의 신체 특징과 습성을 잘 설명해준다. 이들에게 교육받은 대로 손뼉을 치거나 몸을 움직이면 돌고래가 친구처럼 다가가 체험자와 스킨십을 나누고 묘기를 선보인다. 프로그램은 7가지이며 영어로 진행된다.

모든 연령대가 참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돌핀 디스커버리'로 얇은 수심에서 30분간 돌고래와 만날 수 있다. 돌고래의 도움으로 물 위를 질주하고 싶다면 '돌핀 어드벤처'를 선택하면 된다. 서핑보드 위에 엎드려 있으면 두 마리의 돌고래가 발바닥을 힘차게 밀어준다.

리조트 서쪽 끝에 있는 비치 빌라는 고요하고 울창한 자연으로 둘러싸여 있는 최고급 호텔이다.



ESPA는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서 쉴 수 있도록 디자인됐다.

자 건축가인 마이클 그레이브스의 작품으로 꾸며진 부티크 호텔이다. 그의 디자인 작품을 보기 위한 애호가들과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페스티브 호텔(Festive Hotel)은 자녀들을 위한 이층 침대와 어린이용 비품을 갖추고 있어 가족 여행자가 선호한다. 하드록 호텔 싱가포르(Hard Rock Hotel Singapore)는 하드록 고유의 즐거움, 패션을 즐길 수 있다.

에쿠아리우스 호텔(Equarius Hotel)은 자연친화적 휴가를 꿈꾸는 연인과 가족에게 좋고, 전 객실이 스위트룸으로 구성된 크록포드 타워(Crockfords Tower)는 24시간 개인 버틀러 서비스를 제공한다.

싱가포르 최대의 럭셔리 스파

스파센터 ESPA는 싱가포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자연 속 1만㎡에 자리 잡은 ESPA는 24개의 마사지룸과 빌라, 커플 스위트, 비치 빌라, 명상 스튜디오, 네일 스튜디오, 수면 공간, 사우나, 수영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곳은 ‘토탈’ 서비스를 지향한다. 스파 상품을 구입하면 온천 스타일의 수영장과 터키 전통 사우나 하맘(Hamam)을 이용할 수 있고 마사지가 끝난 후에는 자연 속에서 다과를 즐기며 휴식하거나 독립된 공간에서 잠을 잘 수 있다.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1시간에 10명 이상의 손님은 받지 않는다. ❶



독특한 경험을 선사하는 호텔

리조트 월드 센토사가 가진 또 하나의 매력은 각양각색의 호텔이다. 어린이를 동반한 휴가, 자연 속에서의 휴식, 버틀러의 서비스가 딸린 고급 휴양 등 여행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호텔이 6군데나 있다.

리조트 서쪽 끝에 있는 비치 빌라(Beach Villas)는 열대 우림 보호구역에 있다. 도시에서 벗어나 전원에서 휴식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빌라에는 자쿠지와 개인 풀이 딸려 있다. 원 베드 빌라의 숙박료는 하루 100만원 정도지만 리조트에서 실시하는 프로모션을 이용하면 더 저렴하게 묵을 수 있다.

궁전 급의 고급스러운 시설을 자랑하는 최고급 객실 ‘더 팰리스’는 4개의 방과 거실, 부엌, 마사지룸과 수영장이 포함된 넓은 테라스를 갖췄다. 결혼식이나 파티가 열리기도 하는데 최대 80명까지 이용할 수 있다.

비치 빌라는 두 가지 형태가 더 있다. 하나는 S.E.A 아쿠아리움의 오션 탱크에 있는 오션 스위트, 다른 하나는 우림 속 12m 높이 나무 위에 자리 잡은 트리 톱 로프트(Tree Top Loft)다.

호텔 마이클(Hotel Michael)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인 디자이너







Map of Sentosa Island showing various locations and landmarks. Key locations marked include: 비보시티 (Vivo City), 센토사게이트웨이 (Sentosa Gateway), 크레인 댄스 (Crane Dance), 비치빌라 (Beach Villa), S.E.A 아쿠아리움 (S.E.A Aquarium), 어드벤처 코브 워터파크 (Adventure Cove Water Park), 에쿠아리우스호텔 (Aquarius Hotel), 하드락호텔 (Hard Rock Hotel), 페스티벌호텔 (Festival Hotel), 크룩포드 타워 (Crescent Tower), 호텔 마이클 (Hotel Michael), 유나버설스튜디오 (Universal Studios), 싱가포르 (Singapore), 레이크 오브 드림스 (Lake of Dreams), 필라원비치 (Pillay's Beach), 센토사코브 (Sentosa Cove), 센토사 골프클럽 (Sentosa Golf Club), and 탄중비치 (Tanjong Beach).



항공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싱가포르 항공, 저비용 항공사 스쿠트항공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까지 가는 직항편을 하루에 여러 차례 운행한다.



센토사로 가는 법
창이공항에서 리조트 월드 센토사까지는 택시로 20~30분 걸린다. 지하철과 모노레일로 가는 방법도 있다. MRT 창이공항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두 번 환승해 하버프론트(Harbourfront) 역에서 하차한 뒤 비보시티 쇼핑몰 3층에서 모노레일인 센토사 익스프레스(Sentosa Express)에 탑승하면 된다.



기후, 환율, 비자
싱가포르는 연중 무더운 습기가 많은 열대성 기후다. 6~8월에는 더욱 덥다. 우기와 건기가 뚜렷한데 11월부터 1월, 6월부터 9월까지는 비가 자주 오는 몬순 시기다. 싱가포르에서는 싱가포르달러(SGD)를 사용한다. 1SGD는 9월 15일 기준으로 약 840원이다. 관광 목적 입국자는 최대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다.



크레인 댄스 & 레이크 오브 드림스
센토사 워터 프런트에서 밤 9시 무료로 상연되는 크레인 댄스(Crane Dance)는 애니마트로닉스(컴퓨터로 조작되는 인공 로봇) 쇼다. 장수와 부, 행운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학은 신비로운 조명 아래서 사람의 메시지를 전한다. 레이크 오브 드림스(Lake of Dreams)는 불을 내뿜는 용과 제트 분수, 레이저가 등장하는 조명 쇼로 저녁 9시 카지노 근처에서 상연된다.



리조트 월드 센토사의 레스토랑
리조트 월드 센토사에서는 세계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중국 전통 요리에서부터 고품격 프랑스 요리, 미국의 유명 패스트푸드까지 다양한 레스토랑이 입점해 있다. 말레이시아 푸드 스트리트(Malaysia Food Street)에서는 1970년대 말레이시아 길거리에서 먹을 수 있었던 전통 음식 60여 종이 판매된다. 인사동 코리아 타운에서는 비빔밥과 떡볶이 등 한국 전통 요리도 판매된다.



비보시티
싱가포르 남부에서 가장 인기 좋은 쇼핑몰이자 센토사 모노레일이 출발하는 곳이다. 센토사에 머물다 쇼핑을 즐기고 싶을 때는 섬을 순환하는 무료 모노레일을 타고 비보시티로 향하면 된다. 해외 명품에서부터 싱가포르 현지 브랜드까지 다양한 매장이 입점해 있으며 레스토랑, 푸드코트, 전망대, 휴식공간 등을 갖추고 있다.



페스티벌 워크(FESTIVE WALK)
리조트 월드 센토사의 가장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페스티벌 워크는 세계적인 규모의 엔터테인먼트 구역으로 24시간 쇼핑, 식사, 게임, 다채로운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에너지 넘치는 젊음의 거리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품 브랜드 45개가 있는 명품 아울렛이 유명하다.